

광주다웠던 경기...선수들 이탈은 아쉽네

광주FC, K리그1 16R 울산과 1-1 '시즌 첫 골' 변준수 눈 부상 이탈 조성권 경고 누적·박태준 '입대'



“모처럼 광주다운 경기 즐겁게 봤다”면서도 “3명의 선수를 잃은 것 같다”고 광주FC 이정호 감독이 씁쓸한 경기 소감을 밝혔다. 광주FC가 28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울산HD와의 K리그1 2025 16라운드 맞대결에서 1-1 무승부를 기록했다. 전반 30분 변준수가 시즌 첫 골을 장식했지만 아쉽게 결승골 주인공은 되지 못했다.

경기 시작과 함께 울산 허술이 친정 광주 골대를 향해 슈팅을 날렸다. 살짝 골대를 벗어난 공, 이후 광주가 선제골 사냥에 나섰다.

전반 13분 아사니, 전반 19분 박태준이 시도한 슈팅이 무위에 그쳤지만 전반 30분 기다렸던 골이 나왔다.

코너킥 상황에서 박태준이 키커로 나서 뒤로 공을 돌렸다. 공을 잡은 이강현이 왼쪽에서 문전으로 공을 띄웠다. 골대 오른쪽에 있던 변준수가 뛰어올라 헤더로 골망을 흔들었다. 이와 함께 변준수의 시즌 첫골이자 이강현의 시즌 첫 도움이 기록됐다.

하지만 후반 시작 2분 만에 허술의 패스를 받은 울산 에리의 오른발 슈팅이 광주 골망을 흔들면서 승부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동점골을 내준 광주는 이후 거세게 울산을 공략했다. 20개의 슈팅을 날렸고, 10개의 유효슈팅도 장식했지만 상대 골키퍼 조현우의 선방이 이어지면서 경기는 결국 1-1 무승부로 끝났다.

경기가 끝난 후 광주 이정호 감독은 “많은 찬스가 있었는데 아쉽게도 한 골밖에 못 넣어서 비졌다”면서도 “그때도 많은 찬스를 만들었다. 많은 골을 만들 수 있다는 기대를 만든 것이다. 즐겁게 봤다. 모처럼 광주다운 경기를 했다. 홈팬들이 있어서 선수들이 열심히 한 것 같다. 응원해 주셔서 힘이 난다”고 이야기를 했다.

상대 감독인 조성권도 “어려운 경기였다. 광주가 준비를 잘한 것 같다. 힘들었다.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할 정도로 광주는 모처럼 광주다운 플레이를 선보였다.



광주FC 이정호 감독

보였다.

경기를 지휘하는 감독 입장에서도 ‘보는 재미’가 있던 경기. 하지만 오는 1일 대구 원정을 앞둔 이정호 감독은 선수들의 이탈이 아쉽다.

이정호 감독은 “조성권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못나가고 박태준 선수는 오늘까지 뛰고 휴가를 간다. 변준수 선수는 눈 위가 찢어졌다. 3명을 잃은 것 같다. 잘 준비한 선수들에게 기회가 갈 것이다. 잘 준비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최근 주전 수비수 김진호가 십자인대 수술을 받는 등 부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날 또 부상자가 나왔다.

선제골을 장식했던 변준수가 후반 추가 시간에 허술의 팔꿈치에 맞아 눈 부위가 찢어지면서 실려 나갔다. 또 조성권은 옐로 카드를 받으면서 경고 누적으로 대구전에 뛰지 못했다. 그리고 ALCE 일정으로 상무 입대를 미뤘던 박태준은 이날 경기가 고별전이었다.

승리하지 못했다는 아쉬움 속, 선수들의 이탈도



광주FC 변준수(왼쪽)가 28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울산HD와의 K리그1 2025 16라운드 맞대결에서 전반 30분 문전에서 헤딩을 시도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발생했지만 ‘준비한 골’을 만들었다는 점은 의미가 있었다.

광주는 울산전에 앞서 준비한 세트피스 상황에서 골을 만들어 냈다. 도움을 기록한 ‘부주장’ 이강현은 “팀이 이기기

못해 아쉽다. 그렇게 쉽게 넣을 수 있는 골은 아니었는데 준수가 잘했다. 헤딩 못 한다고 놀렸는데 복수를 해줬다”고 이야기했다.

“전날 연습할 때 강현이 형이 헤딩골 왜 못 넣냐고 뭐라고 했었다. 그래서 준비를 잘했다. 내가 잘

한 것 같다”며 웃은 변준수는 “마침내 수석코치님이 세트피스 열심히 준비하시는데 골 넣어서 좋다. 홈에서 이겨야 했는데 이기지 못한 것은 아쉽다. 대구 원정 가서 이겨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는 터닝포인트...더 성장해서 돌아오겠다”

상무 입대 앞둔 광주FC 박태준 지난해 성남FC서 이적 ‘살림꾼’ 병무청 배려로 입대 2개월 연기



시즌 27경기에 출전해 자리를 잡았고, 올 시즌에는 미국 도전에 나선 정호연의 빈틈을 완벽하게 채우며 광주의 새로운 ‘살림꾼’으로 역할을 했다.

“더 많이 성장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광주FC의 박태준(사진)이 홈팬들 앞에서 고별전을 치렀다.

박태준은 지난 28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2025 16라운드 울산HD와의 경기에서 선발로 나와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그라운드를 누볐다.

내달 3일 상무 입대를 앞둔 박태준이 광주에서 뛰는 마지막 경기.

전반 30분 코너킥 상황에서 키커로 나서 변준수의 선제골 시작점이 된 박태준은 직접 골대도 부지런히 두드렸다. 박태준은 이날 4개의 슈팅을 날렸고, 모두 유효슈팅으로 남았다.

아쉽게 득점에는 실패하면서 경기는 1-1 무승부로 마무리됐다.

지난해 성남FC에서 광주로 이적한 그는 지난

올 시즌에도 15경기에 나와 그라운드를 중형무진 누빈 박태준은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E) 무대에서 좋은 활약을 하면서 잊지 못할 시즌을 보냈다.

4월 7일 입대가 예정됐던 박태준은 병무청으로부터 입대 연기 허락을 받아 광주 유니폼을 입고 사우디로 건너가 ACLE 8강 경기도 뛰었다.

당분간 광주를 떠나게 된 박태준은 “누가 있나 없으나 똑같은 팀이다”고 팀의 흔들림 없는 시즌을 기대하면서도 “갈 때가 되니까 착잡하다. 이제 이 경기장에서 못 땀다. 잔디가 너무 좋았는데”라면서 씁쓸하게 웃었다.

광주는 성남 시절 인연이 있는 이정호 감독을 만나 한 단계 성장한 곳이다. 그래서 박태준은 광주를 ‘터닝포인트’라고 말한다.

박태준은 “광주는 나의 터닝포인트다. 설렘 반 걱정 반인데 좀 더 성장해서 돌아오도록 하겠다”며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했다. 팬들이 미우나 고우나 항상 응원을 해주셨다. 앞으로도 광주FC가 더 잘할 수 있게 응원해주시면 좋겠다”고 작별 인사를 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PSG 이강인 “UCL 반드시 우승”

6월 1일 독일서 인터밀란과 결승...박지성 이어 한국인 우승 도전



프랑스컵 우승 메달을 목에 걸고 포즈를 취하고 있는 이강인. /연합뉴스

한국 선수로는 박지성이 이어 두 번째로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바라보는 국가대표 미드필더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이 팀 정신을 강조하며 필승 의지를 다졌다.

이강인의 소속팀 파리 생제르맹(PSG·프랑스)은 6월 1일 오전 4시 독일 뮌헨의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인터 밀란(이탈리아)과 2024-2025 UEFA 챔피언스리그(UCL) 결승전을 벌인다.

이강인은 29일 구단 홈페이지에 “우리는 올 시즌 시작 후 매우 잘했다.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보람 있는 일이다. 정말 행복하다”고 시즌을 돌아본 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꼭 우승하겠다”고 인터 밀란과의 마지막 대결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

PSG는 이미 이번 시즌에 프랑스 정규리그인 리그1을 비롯해 슈퍼컵(트로페 데 샹피옹)과 프랑스컵(쿠프 드 프랑스)에서 우승해 국내 대회 ‘트리플’(3관왕)을 달성했다.

이제 UCL 우승으로 화려했던 시즌의 대미를 장식하려 한다.

이강인은 박지성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역대 두 번째로 UCL 우승을 노린다.

박지성은 잉글랜드 명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 소속으로 2007-2008시즌 UCL 우승을 경험했다.

다만 박지성은 당시 출전 선수 명단에서 빠져 관중석에서 경기를 지켜봤다.

이후 박지성이 맨유에서 두 차례(2008-2009, 2010-2011시즌), 토트넘 홋스퍼(잉글랜드)의

손흥민이 한 차례(2018-2019시즌) UCL 결승 그라운드를 밟았으나 모두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이강인은 팀 정신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더욱 단결하고, 서로를 돕고, 하나의 팀이 되려고 노력하고,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했다”면서 “앞으로도 우리는 이 길을 계속 걸어갈 거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UCL 결승전의 열쇠도 같은 곳에서 찾았다. 이강인은 “이미 말했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라는 것이다. 우리는 승리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그것이 최고의 결과를 낼 수 있게 해 줄 것”이라면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강인의 결승전 출전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강인이 올 시즌 UCL 경기를 뒀던 16강 2차전이 마지막이다. 8강 1차전부터 4강 2차전까지 네 경기에서는 모두 벤치를 지켰다.

/연합뉴스

전북현대-울산HD ‘현대가 더비’ 매진

31일 전주월드컵경기장 K리그1 ...분데스리가 이재성 사인회도

프로축구 K리그1 선두 전북현대가 오는 31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울산HD와 이번 시즌 두 번째 ‘현대가(家) 더비’를 앞두고 창단 이후 처음 ‘입장권 매진’을 달성했다.

전북 구단은 29일 “울산과 ‘현대가 더비’를 앞두고 창단 첫 매진 기록을 세웠다”며 “판매 가능 좌석 3만2560석(시즌 티켓 포함)이 모두 판매됐다”고

밝혔다.

구단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관중석 리모델링 작업으로 현재 전주월드컵경기장의 좌석 수는 3만4207석이지만, 시야 제한 및 장애인석 등 비판매 좌석을 제외하면 3만2560석을 판매할 수 있다.

지난 26일 시작된 입장권 예매는 하루 만에 1층 전 좌석이 빠르게 매진됐고, 이날까지 일반 예매가

2만7000여석을 돌파, 시즌 티켓 소유 팬을 포함하면 ‘입장권 매진’을 기록했다.

2012년부터 K리그 실관중 집계 이후 전북의 K리그 홈 최다 관중은 2016년 11월 6일 FC서울과 당시 최정종으로 3만3706명이었다.

당시 전주월드컵경기장의 관중석이 4만2000여석이어 매진에는 이르지 못했다.

한편, 이번 ‘현대가 더비’ 승리를 기원하기 위해 독일 분데스리가 마인츠에서 활약하는 이재성이 전주월드컵경기장을 찾아 사인회를 열고, 인기 그룹 ‘잔나비’는 하프타임 공연을 펼친다.

또 경기장 이동 편의를 위해 ‘1994 버스’를 15대로 증편하고, 전북지방환경청,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전북녹색기업협의회에서는 전주역과 익산역에서 전주월드컵경기장까지 이동하는 수소전기버스를 5대씩 지원해 무료 운영한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2천만뷰 돌파